

담양군, '대전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과제 발굴·도시재생 방향 설정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바람 불리일으킬 기회"

담양군은 지난 3월 31일 '대전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했던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대전면 주민들이 수료한 도시재생대학은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이를 위해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 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지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민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바람 불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관계자는 "대전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 이번에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계획에 충



실히 반영해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바이어 초청 농특산물 품평 상담회...대형 유통사 입점 성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 결정 20건...입점 검토 95건

곡성군이 지난 3월 31일 곡성군 문화체육관광에서 개최된 농특산물 품평 상담회에서 20건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결정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GS홈쇼핑, 농협, 전문 무역상사 등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가 초청됐다. 이들은 사전 매칭된 곡성군 지역 농특산물 관련 기업을 만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유통 방식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참가 업체당 약 5회의 유통 바이어 1:1 전문 상담을 받았으며, 그 결과 입점 결정 20건, 입점 검토 95건의 큰 성과를 올렸다.

주요 상담 품목은 멜론, 흑찰옥수수 등 곡성군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약 80여종의 다양한 가공 상품으로 구성됐다. 참석한 바이어들은 전시된 상품들을 둘러보며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곡성군 농특산물은 높은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상품을 선보일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와 다품목 소량 생산 등으로 인해 유통 시장이 급변하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지역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이번 품평 상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지역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 40개가 참여하면서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업체 관계자들은 초청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입점 절차, 상품의 개선 방향, 각 유통사별 물류·위생·품질 기준 등을 상담하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

오늘부터 마을(농가)별로 공급

구례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공급을 통해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매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ha, 2,936농가에 우량 상토를 전액 지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벼 재배 농

가로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마을(농가)별 공급은 오는 4월 4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종류는 준중량형 상토(200), 준중량형 친환경상토(200), 매트형상토 3종류로 1ha당 55포(200/포)를 지원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일손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영농비절감을 통한 구례 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례=백진호기자

나주시,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나주시는 전라남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에너지밸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시·군 수요가 반영된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전기에너지융합1·2기'(5~11월), '회계실무자'(6~7월), '안전관리자'(6~10월) 등 총 4개 양성과정으로 과목별 15명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개강 전까지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출석률 80%이상 교육생에게는 실비를 지급한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고려병원, 4월부터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 자진 반납 지정 취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으로 역할을 하던 화순고려병원이 4월부터 '응급의료시설'로 운영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고려병원이 지난 달 25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승인을 자진 반납하자 화순군은 3월 31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화순고려병원은 응급의료 인력 부족, 경영 어려움 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고려병원은 1997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25년 동안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서비스를 맡아왔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화순고려병원은 군민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시설로 변경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국가나 지자체 신고 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일반 응급실)이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운영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전문의 2명·간호사 5명(2명 근무) 등 인력을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시설은 의사 1명·간호사 1명의 인력을 갖추면 된다.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병원 3개소, 요양병원 13개소, 의원 29개소, 치과 17개소, 한의원 12개소로 전남군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2017년 의료취약 제외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다.

화순=박순철기자

화순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화순군이 미세먼지 줄이기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되고 농협 농업 면세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장 작동을 하는 경우 트랙터·콤바인(이하 농기계)이다.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 농기계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4월 1일부터 사업비 7600만 원을 모두 집행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 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13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